

여성결혼이민자의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

김 신 회(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김 성 봉(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상의 문제와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고찰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교육서비스의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방문교육 지도사 선발 및 교육, 방문교육서비스 제공기준 및 기간, 방문교육서비스 교재 및 교육내용에 관한 것과 방문교육서비스의 성과 및 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A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이미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았고, 집합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88명, 부모교육 72명으로 총 160명을 직접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빈도분석, 분산분석과 t-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의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성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국적이, 교육내용에서는 직업과 거주지역이, 교육성과에서는 직업과 결혼동기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국적과 직업, 거주 지역, 결혼동기 및 소득수준이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교육 시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환경 및 교육내용과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교육기간과 교육시간 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이 길수록 교육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의 교육환경요인과 교육내용요인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성과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국적, 연령, 학력, 직업, 결혼경로, 거주 지역 및 남편직업에서, 교육내용에서는 국적과 연령에서, 교육성과에서는 국적, 연령, 직업 및 남편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접면담의 결과 중국과 필리핀의 결혼이민자들은 나이가 많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결혼이민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임신·출산이나 부모-자녀관계증진, 영양 및 건강지도 등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교육성과에서는 남편관련요인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편의 역할에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것으로 해석되어 남편을 위한 자녀양육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환경 및 교육내용과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교육환경의 교육시간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과 교육성과 간에는 부모-자녀관계 증진교육, 영양 및 건강지도교육 그리고 자녀생활지도 및 학교입학준비교육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기간에 대한 조정과 자녀양육이나 입학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호응도가 높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이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기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